



말씀으로 거듭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시작되는 부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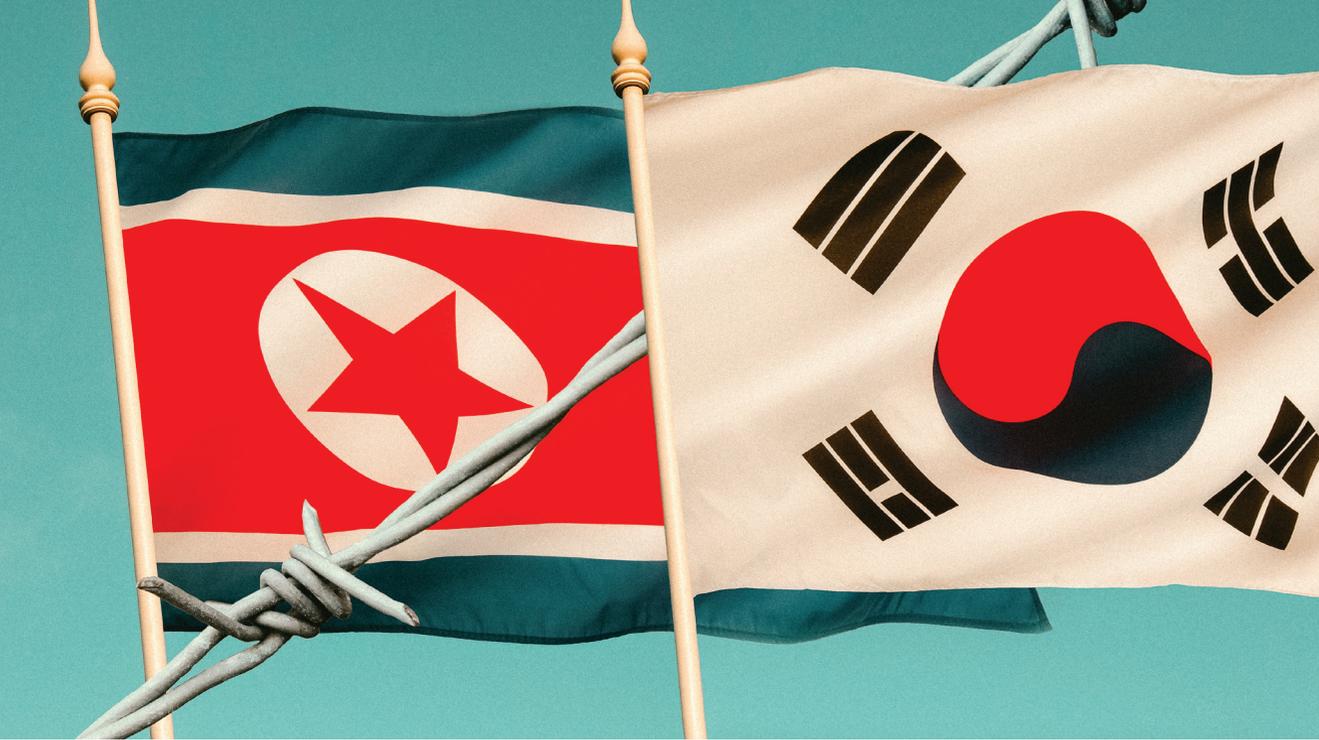


동구권 붕괴에도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지킨 북한

1980년대 후반, 전세계 공산주의 불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며 소비에트 연방은 15개 국가로 갈라졌습니다. 중국 역시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과 자유세계의 가치가 전세계를 압도하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강화하며 세계 질서에서 더욱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 한 고난의 행군

1990년대 중반 50년 동안 북한을 통치했던 김일성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자연재해가 제주처럼 북한에 임합니다. 그로 인해 북한이 자랑하던 무료배급체계는 붕괴되었고 최대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배급체계가 붕괴되자 수십 만의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중국으로 도망칩니다.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의 삶

무작정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자들은 북한의 국경과 가까운 동북3성에서 지내며 근근히 생명을 이어갑니다. 남자들은 임금한푼 받지 못하고 먹여주기만 하면 닥치는대로 일을 하였고 여자들은 중국의 가난한 농촌지역에 남자들에게 팔려가 성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굶어죽는 것보다 나았기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굶주림과 목마름보다 그들을 더 괴롭혔던 것은 언제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당시엔 강제 북송이 되면 심한 고문을 받은 후 사형을 당하거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북한 선교

나그네와 같은 탈북자들을 가장 먼저 섬긴 곳은 미국과 한국 선교사들 그리고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당장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을 교회가 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쇠뇌되어 아버지로 모셨던 김일성이 해주지 못한 것을 교회가 해 준 것이죠.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하고 사랑을 해주자 탈북자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수십년간 받아온 반-기독교 사상교육 때문이었죠.

탈북자 한 명의 거듭남이 곧 북한선교

그런 상황에서 1997년 열방빛선교회의 최광선교사는 중국으로 처음 들어갑니다. 후원자도 없이 성경과 몇벌의 옷, 그리고 단돈 4만원만 가지고 무작정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탈북자들과 함께 아파트 하나를 빌려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곳 없는 그들과 성경 1000독을 목표로 하루 종일 성경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표는 단 하나 '탈북자 한 사람의 거듭남이 부흥의 시작이다' 돈이 떨어져 식량을 살 수 없으면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 공간에게 발각되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성경 읽고 기도했고, 몸이 아프면 아픈대로,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대로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일년을 탈북자들의 고난과 아픔, 굶주림을 함께 겪으며 생활하자 조금씩 그들에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을 유물론적 사상 교육을 받아왔던 그들에게 성경은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성경을 40~50독을 하면서 거짓말 같았던 성경이 믿어지며 성령의 체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북한의 선교사가 되기를 자청하며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탈북자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걸죽한 북한식 사투리로 고백했습니다. "내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8명에서 시작됐던 성경 통독반이 점점 늘어나 7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선교사들로 세워졌고 250여 명의 탈북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북송된 탈북자들

선교의 현장에는 늘 순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최광선교사의 북한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내부자가 북한체제 붕괴를 꾀하는 반란조직이라는 거짓 고발을 해 한꺼번에 리더 중 70여 명 붙잡혀 북송되었고 최 선교사 역시 중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 중 17명이 북한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추방당한 뒤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성경통독학교를 열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 한 영혼의 거듭남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레 죽어도 좋습네다”라는 북한 선교사 훈련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 1:23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인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다 36세 늦은 나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지금까지 천국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선교의 현장에서 고집스럽게 하루 여섯 시간 이상 성경 통독과 세 시간 이상 기도의 방법으로 철옹성 같은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수십명의 북한 출신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모두의 만류에도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늘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게 북한 선교의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북한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한 사람의 영혼 구원! 북한 선교의 알파와 오메가이고 진정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제게 '낡은 것'이 아닌 '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번 NRB 컨벤션의 참가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북한 선교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곳에서 만나게 될 귀한 미국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이번 만남이 북한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영화와 만화 등 포함한 여러 미디어를 통해 열방에 알려 전세계적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깨우는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방빛선교회 대표 **최 광** 목사



THE LIGHT UNTO THE NATIONS

열방빛선교회는 1998년 8월 중국 길림성에서 만난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성경100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500여 명의 탈북자들과 9개 성에서 100개의 성경100독 사역장을 세워 제자들을 양육하였고 이후 한국에서 100여 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중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경100독과 기도에만 집중하며 제자 양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여 명의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가 세워졌고 50여 명의 탈북자 목회자와 신학생을 양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17명의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붓는 하인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고 온 열방의 부흥을 기다리며 이제는 미디어 영역까지 확장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875

무디 부흥운동



1904

웨일즈 부흥운동



1906

아주사 부흥운동



1907

평양 대부흥



2008

제2차 탈북자 사역 (중국)



2001

중국 공안에 의해 리더급
74명 체포 및
북송 사역장 해체



1998

열방빛선교회
탈북자 사역 시작 (중국)



2011

황금중 교회 개척



2012

한국 내 탈북자성경100독
학교 시작



2020

유튜브 채널 내래TV 개설



2023

Again 1907 평양대부흥
집회 시작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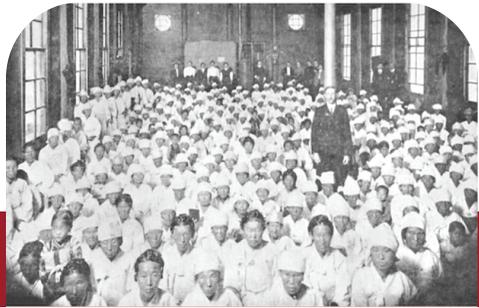
1875
무디 부흥운동



1904
웨일즈 부흥운동



1906
아주사 부흥운동



1907
평양 대부흥



1998
열방빛선교회
탈북자 사역 시작 (중국)



2001
중국 공안에 의해 리더급 74명 체포 및
북송 사역장 해체



2008
제2차 탈북자 사역 (중국)



2011
황금종 교회 개척



2012
한국 내 탈북자 성경100독학교 시작



2020
유튜브 채널 내래TV 개설



2023
Again 1907 평양대부흥
집회 시작

탈북자성경백독학교

본질은 단순합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성경 100독학교는 1년 동안 구약 100독 신약 20독 매일 기도 3시간 이상의 단순한 커리큘럼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강력한 주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또한 국내외 아웃리치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선교현장에 풀어놓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단순한 커리큘럼이 아닌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만을 위한 학교를 넘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전세계 사람들을 위한 학교로 확장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국제성경백독학교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북한 선교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북한선교기지 NK Testimony는 북한 선교의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북한 크리스천들의 간증과 북한 순교자 시리즈 등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 만들어 낸 열매들을 증언하는 콘텐츠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북한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엮어 영화와 만화, 뮤지컬 그리고 소설과 동화책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북한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부흥을 기다립니다.

Again1907 평양대부흥집회

20세기 초는 전세계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1907년 아주사 부흥운동의 성령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저한 개인적 회심과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100만 구령운동으로 이어져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우상의 진이 지배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코로나와 세상적 부요로 인해 첫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매년 1월 첫째주에 탈북자와 남한의 성도들이 모여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집회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과 영적 각성, 그리고 온 열방의 부흥이 이뤄지길 사모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100독학교 출신 순교자들의 편지



“길가의 조약돌마냥 굴러다니며 온갖 천대와 멸시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썩고도 썩은 세상, 멸망의 음부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로 다듬어 주시고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며 굳게 서서 내 나라 북한을 위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 가는 우리들 됩시다. 천국 복음을 위한 그 길에서 더욱 담대히 믿음에 굳게 서서 역세계 나가기를 바랍니다.”



김주복

2001년
신민주 보위부 감옥에서 처형



주광호(본명 광동수)

2001년
신민주 정치범수용소에서 순교 추정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이 길로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번 어려운 일을 통하여 피눈물의 길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북조선 사역을 감당하느냐 못 하느냐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관건이며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만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성경 1000독 읽기의 불길을 지피게 하신 것은 북조선 복음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복음 통일, 세계복음화를 감당시키려고 중생된 영을 배출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21살입니다. 세워진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역을 하기에는 부족한 나이지만,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제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입니다. 북한의 성령의 복음이 전해져서, 성도들의 찬송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깨끗한 보혈로 순종한 종으로 살리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누가

2001년
북송 후 청진 정치범 수용소에서 화형



장만식

2000년
북송 후 온성 보위부 감옥에서 순교

“늦게나마 주님을 알고 예수님 믿게 됨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구주 예수를 끝 날까지 의심치 않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세상 것의 모든 어떠한 것을 버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하루하루 천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며 기쁘기만 합니다.”

“저의 이름을 칼빈으로 지어 주셨죠. 저 북한 땅의 순결한 신앙, 오직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예비하신 민족이 되도록 일생을 다바칠 각오입니다. 새 땅에는 새것만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땅에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경 1천독을 생명 걸고 해 나가겠습니다.”



진칼빈

2000년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원에게 납치 후 순교



북한의 기독교인 101

Q1

북한은
어떤 국가인가요?

A

중국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에 북위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비슷한 크기로 약 2천5백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정치적으로 인민 사회주의, 경제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이어 최근 12살이 채 안 된 김정은의 딸 김주애에게 권력을 세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유사-왕정 세습 국가입니다. 기독교학자들은 북한이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주체사상' 신념 체계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이단 종교 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2

북한의
기독교 현황은
어떠한가요?

A

북한은 세계적 선교단체 오픈도어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리매김하여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체제의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공산당과 김씨 세습 일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서 유일하게 종교적 신념 체계와 지위를 갖는 것은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알려진 '주체사상' 뿐입니다. 기타 종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종교 실천이나 외부 종교 단체의 활동은 엄격히 단속되며, 국민은 오직 '주체사상'의 이념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Q3

**북한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나요?**

A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며, 통치 이념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엄격히 처벌합니다. 북한 외부의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2020년에 제정된 <반동문화사상배격법> 29조에는 성경을 포함한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 영상물 등을 유포 또는 시청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엄격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일반 국민은 ‘예수’, ‘신앙’, ‘부활’ 등에 대한 단어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소수의 기독교 신자가 북한 내에 존재하는데 그 숫자조차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국가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일반 형사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분류해 체포, 구금, 강제 노역, 가혹한 대우, 심지어 사형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제종교위원회의 2019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에 의해 약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중 5~7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4

**북한에도
공식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A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만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존재하는데 철저하게 ‘조선노동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두 교회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전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두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당원이 되어 당과 김씨 일가에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탈북한 고위급 인사에 따르면 두 교회의 교인을 모으기 위해 교회 주변의 국가의 충성심이 높은 여성들을 차출했는데 처음엔 출석률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봉수교회 집사라고 자칭한 한 여성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며 김일성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흑자는 교회는 가짜이지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Q5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은
무엇인가요?**

A

김일성이 고안했다는 주체 농업의 실패와 90년대 중반 북한의 치명적인 흉수와 가뭄으로 인해 북한에선 전국적으로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97년까지 전국적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은 이에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상적, 정신적 단합을 고취해 ‘고난의 행군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회적 구호입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굶주림을 피해 대량 탈북이 발생했고 중국으로 많은 북한 주민이 불법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탈북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적발되면 강제로 복송이 되어 엄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Q6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중국으로 대량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90년대 후반, 기근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넘어오자 오갈 곳 없는 그들을 받아준 곳은 서방과 한국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적 양육을 받고 있던 조선족 교회들이었습니다. 탈북자들도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림에 떨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지만 차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을 위해 비밀리에 미션홈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며 중국과 북한에 전도자로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고 또 일부는 중국에서 복음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Q7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불법 경제 이민으로 간주해 체포하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대개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 공조 하에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추적 및 색출하고 구금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951년에 채택된 유엔의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인 중국의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탈북한 북한 주민들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인간의 가장 기초적 권리인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Q8

북송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탈북에 실패하거나 중국에서 북송된 사람들은 모두 강제 송환 시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들의 기초 조사를 마치면 북한 당국에 의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북한의 보위부원들은 탈북자들에게 우선하여 묻는 것은 적성국(미국,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 여부입니다. 탈북자들은 보통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적성국 국민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특별한 심문 과정을 거칩니다.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체제에 대한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 사명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Q9

북한으로의 선교 활동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A

현재 북한 내부에서의 전도 활동은 국가 체제의 도전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3호 담당제도라는 북한의 독특한 주민감시제도가 있습니다. 세 가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로써 특별히 체제에 대해 대한 불만을 감시하게 됩니다. 종교적 행위 역시 주요 체제 반동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적 행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훈련받은 소수의 인원이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간증이 전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중국 통독반에서 훈련받은 한 형제는 남한으로 들어왔지만, 전도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 발각되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Q10

**북한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A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으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허용하는 예배는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예배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외부 세계의 보여주기 위한 선전도구로서 행사적 요소가 강합니다. 이 두 곳을 제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국가에 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적 행위입니다.

다만 소수의 인원이 몰래 가정집이나 깊은 산 속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예배를 드리다 발각이 돼 공개처형을 당한 여성의 이야기가 북한 당국의 보위부 교육용 영상을 통해 소개될 정도로 북한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신앙 행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Q11

**북한을 떠난
탈북 기독교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나요?**

A

대부분의 탈북 크리스천의 꿈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성령 체험을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함께 살았던 이웃들에게 나눌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Q12

**북한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A

우선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가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멈추기 위해선 정권의 변화, 체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효과가 불확실한 인도적 지원보다는 확실한 체제변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더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자행되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극소수의 지하교인들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빛선교회
LIGHT UNTO THE NATIONS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4길 5 B1
+82 10-9737-2052, +82 2-895-2052